지상백고좌

한산사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

“수행자라면 ‘중도정견’ 바른 이해가 우선”

12면에 이어

敎로써 마음 비추고 마음으로 교 해석
교에 의거해 수행하는 ‘선교겸수’ 강조
중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게 ‘정견’


올해로 4회를 맞은 ‘불이선회’는 선사상 공부와 함께 실참을 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로, 월암 스님이 이끌고 있다.

“청허 스님은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선과 교는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敎)로써 마음을 비추고 마음으로써 교(敎)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교겸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에 의거해서 선을 깨닫는 것이 달마 선사가 제시한 선교겸수의 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참실구로 정진할 때도 먼저 공부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바른 신심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월암 스님은 벽송선회를 계승해 불이선회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다. 불이선회는 〈유마경〉의 불이법문에서 나온 말이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삶이 곧 수행이라는 사상이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선사상 공부와 함께 실참을 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가 불이선회이다.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니가 참가하는 불이선회는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린다. 불이선회는 유나방송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희망이자 새로운 수행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스님들의 불이선회는 경주 황룡원에서 진행됐다.

재가자의 불이선회는 매월 둘째 주 토·일요일 1박 2일 동안 한산사에 모여서 법문 듣고 수행을 한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한다. 이렇게 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 월암 스님은 불이선회를 이끌면서 “삶이 곧 수행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위빠사나를 비롯해 여러 수행법이 유행인 상황에 대해 선의 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이에 스님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지구촌 시대인데 간화선이 아닌 다른 수행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법과 조사의 법이 다르면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 직설이기 때문에 정통의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간화선 수행이 최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불교가 수기설법의 방편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전통의 화두선, 염불선, 묵조선을 수행해도 좋고, 새로 들어온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행해도 좋습니다. 서로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화두 들고 간화선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월암 스님은 세 가지 정도의 방편을 사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안반선(安般禪) 호흡수행을 좋아합니다. 들숨 날숨에 집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호흡하는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화두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보살님들에게는 염불선을 권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참구하도록 합니다. 자성미타와 서방미타가 합일될 때까지 부르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이런 방편 없이 바로 화두선으로 들어가 ‘이 본래 면목이 뭐냐’하고 화두를 참구하는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을 고르는 것이 자신에겐 최상승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은 “초기불교부터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 영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행방편이 모두 선정과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월암 스님은 수행자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중도정견(中道正見)임을 강조했다.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견’이다. 바른 정견이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정견을 확립하고 바르게 보고 실천할 때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正定)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들 수 있다. 스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다.

“견성성불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원하여 일심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은 먼저 정견의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제 스님은 ‘진정한 구도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구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것이 절박하다. 바른 견해를 통달하여 뚜렷이 밝으면 비로소 일대사를 마치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어 불생불멸임을 여실히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도에 대한 바른 안목이며, 중도에 대한 바른 안목이 바로 중도정관(中道正觀)입니다. 중도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고(苦)와 낙(樂), 있음과 없음, 생(生)과 멸(滅) 등 상대적인 어떤 두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란 모든 법이 무상하고 공하므로 연기적 관계성 위에 이루어지는 양 극단을 떠난 관계성을 말한다. 연기는 곧 중도라고 말하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연기요 중도이다. 연기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기에 자신의 고유한 실체성을 지닐 수 없음을 가리킨다.

“결국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 중도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갖춰져야 됩니다. 중도정견이 갖춰져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삿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월암 스님은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을 해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다.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가장 좋은 절은 친절,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이라는 평소 스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굴러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선종의 종지는 견성성불(見性成佛)과 요익중생(饒益衆生)입니다. 견성성불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 바로 지혜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견성성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동체 자비심이 흥건히 묻어나는 그곳에서 견성성불의 꽃이 필 수 있어요. 제가 중국 유학 마치고 산문에 들어와 보니 견성성불만 이야기하지, 요익중생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이다.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견성성불을 말한다.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실천행을 말하는데 이것이 요익중생의 문이다. 달마 스님은 견성성불 요익중생을 동시에 제시했다. 제자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중생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심인데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만 그 법이 내려올 수 있단다.

월암 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이 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사명감도 자비입니다. 결제 기간에 열심히 견성성불하려고 실참을 했으면 산철이 되면 이 공부를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견성성불 요익중생’은 동사형이지 박제된 언어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그냥 허물어져버린다면, 화내고 짜증내고, 서로 옳다 틀렸다 하면서 시비한다면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차원 높은 견성성불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삶 속에서 견성은 동사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견성은 결코 명사가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활발발하게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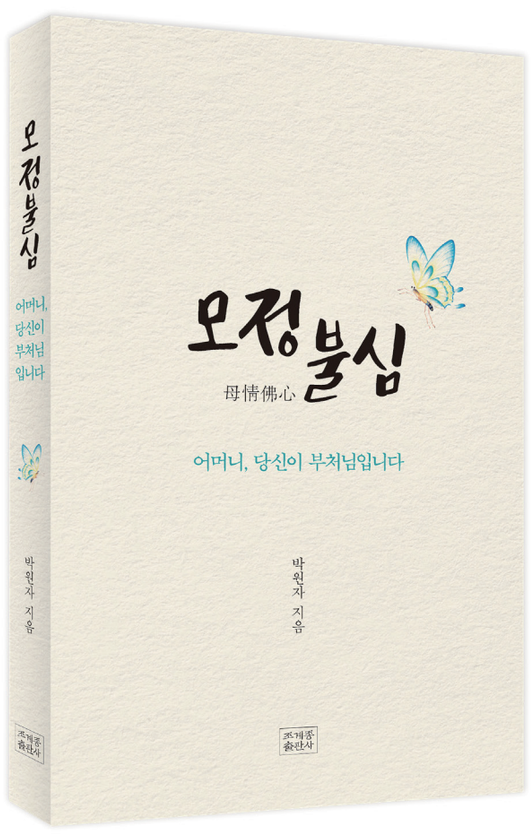
‘삶이 바로 수행’이라는 스님의 사상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되는 말씀이다.

이어 스님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닦아 깨달음에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가 신심(信心)이요, 둘째가 발심(發心)이다.

“신심이란 마음이 부처요,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의 자리를 확신하여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심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이란 생사를 해탈하여 많은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심이 전제되어야 원만한 수행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스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중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가 본래 부처이고, 주인공이라고 일러주어도 믿지 않아요. 제 꿈은 세상 전체가 불국토가 되어 부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문윤정 / 작가



위대한 출가자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주신
우리들 부모님은 다 부처님입니다.”

법전·월암·일진·종연·원산·해성·동봉·주경
혜총·자광·동은·자우·무여·원제·준한 스님 등
28인의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바르고 맑은 어머니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로 살아가는 방법!

박원자 지음 | 264쪽 | 19,000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